

'33년 매출 성장' 한국통산... 비결은 도전의 힘

성장기업의 비결

한국통산은 국내 원양어선 어망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한 국내 대표 수산물 기업이다. 조식, 자동차부품에 들어가는 동(구리)판 및 동코일을 생산하는 금속사업과 수산물 유통업도 하고 있다. 작년 매출은 전년 대비 10% 늘어난 2200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50% 증가한 107억 원을 나타냈다. 창립 35주년이 되는 2022년 매출 3000억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국통산은 1987년 서일대 사장(73사 진)이 창업한 뒤 현재까지 33년간 단 한번도 영업직자를 내거나 매출이 하락한 적이 없다. 주로 수출과 무역을 통해 달러를 벌어들인다 보니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오히려 환차익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경종 뛰었다. 러시아, 유럽(이탈리아), 중남미(파나마, 아르헨티나), 아시아(중국, 싱가포르) 등 여섯 곳에 해외 사무소를 둔 가나 데 러시아와 무역 거래 규모는 연간 수천 억 원에 이른다.

▶ **어망시장 점유율 90%**
서사장은 젊은 시절 선장의 꿈을 안고 부산수산업(현 부경대)에 진학했다. 하지만 배말미를 심하게 하는 체질 탓에 선장의 꿈을 포기했다. 대신 선장을 상대로 영업해야 하는 어망 제작·판매 쪽으로 진로를 바꿨다.



국내 원양어선 어망 90% 점유
창업후 매년 영업의 흑자 '기록'

비결 금속사업·오메가3 공장
과감한 '다각화 승부수'

작년 매출 2200억, 영업이익 50%↑

평소 술을 못하는 서사장이 원양어선 선장들의 마음을 얻은 비결은 철저한 '고객 중심 사고'다. 선장의 부인들에게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날에 맞춰 감동의 편지나 꽃을 보내는 것이 기본이다. 창업 초기 부산영도 24평 자택에 여섯 식구가 살 때, 오랜기간 못 만난 남편을 만나러 부산으로 내려온 선장 부인을 위해 안방을 내 준 일화는 업계에서 유명하다.

서사장이 일군 한국통산 어망은 현재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을 누비는 동원산업, 사조산업, 신라교역 등 주요 참여기업의 원양어선 60여 척에 대부분 공급되고 있다.

한국통산(주)	창업 1987년	소재지 부산	창업주 서일대
주요사업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망 등 수산물 기자재 제조·판매 참치 연어 등 러시아 수산물 유통 동판 및 동코일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매출 2200억원, 영업이익 107억원 2022년 매출 목표 3000억원 		

한국통산은 수산업 유통에도 뛰어 들었다. 동원 사조 등 대기업을 제외하면 중견·중소기업 중 유일하게 참치를 유통·수출하는 업체다. 코로나19 발생 후 가정용 냉동 가공식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베트남 수산물 가공공장을 통해 미국 월마트에 납품하는 명태 가공육도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

◆ **기대밖 두 번 도전의 성과**
수산업 관련 기업이지만 연간 매출의 절반(1000억원 규모)은 금속사업에서 나온다. 금속사업 진출은 1995년 기존 어망 제조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 바로 옆 공장 부지(부산 사하구 신명동)를 사들인 게 계기 됐다. 당초 부지에 떨어진 제조 설비를 버리려다 "설비를 활용해 금속사업을 해볼 만하다"는 내부 직원의 의견을 듣고 생각을 바꿨다. 한국통산은 동판재 시장에선 국내 1위, 동코일시장에선 전신, 이구산업에 이어 3위에 올라 있다. 전기가 시대가 도래하면서 2차전지 소재(동박) 수요가 늘고 있어 이 분야 매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금속사업에 이은 두 번째 도전은 '오메가3사업'이다. 2018년 오랜 친분을 쌓아

온 러시아 업체가 "오메가3 제조 공장을 지어달라"는 제안을 하면서 찾아왔다. 이 사업을 주도한 서 사장 장녀인 서지영 전무는 "밤새워 바이오 서적과 논문을 뒤지며 맨땅에 헤딩하듯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국통산은 작년 러시아 캅카스 지역에 국내 기업 최초로 일관생산체제의 오메가3 정제공장 설비를 완공했다. 현재까지 오메가3 원재료를 수입해 가공·생산하는 국내 기업은 있었지만 해외 원료를 직접 추출해 오메가3를 생산한 곳은 한국통산이 국내에서 유일하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자체 오메가3 공장 신설을 추진하며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이다.

서사장은 한국통산 30여 년 영업흑자의 비결을 '자업 다작화'라고 꼽았다. 서사장은 "금속사업과 오메가3 공장 등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 것이 성공의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화재안전기준 강화되는데 외면받는 방염필름

현장에서
서기열 기자
중소기업부

시장 비중 80%서 20%로 '뚝'
비싼 방염필름 안 쓰고 불법 시공

사용해야 하는 공간은 규정돼 있다. 어린이나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병원을 비롯해 대규모 인원이 이용하는 종교시설 및 호텔, 11층 이상 고층 오피스텔 등이다. 올 들어선 스크린 야구장·양궁장, 키즈카페, 방탈출 카페 등도 방염 필름을 사용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로 추가됐다.

인테리어업계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인테리어필름 시장은 전년보다 10% 이상 성장한 1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지난해 방염 필름 판매는 20% 이상 증가했지만 방염 제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방염제품이 현장에서 외면받는 이유는 불법 시공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 대표는 "방염 제품을 반드시 써야 하는 현장에서도 방염 제품을 절반 이하만 사

용하고 나머지를 비방염 제품으로 하는 곳이 수도룩하다"고 했다. "건축주가 공사비를 줄이길 원하니 시공업체는 불법을 무릅쓰고 더 싼 비방염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방염 필름은 비방염 대비 1.5~2배 정도 비싸다.

간소화된 방염 성능검사로도 같은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2013년 법제처는 소방분야 불법 법령을 정리하며 방염처리 실내장식물에 대해 중북 방염성능검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제조사가 사전에 방염성능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면 검사 감독당국이 현장에서 검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 이후 시공업체는 관할 소방서에 사용 제품의 방염인증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규제 완화 이후 방염인증 제출을 위해 방염 필름은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비방염 필름을 섞어서 시공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다. 게 현장의 목소리다.

대명소노시즌 대표에 김범철 씨

국내 리조트업계 1위
대명소노그룹의 지주사 대명소노시즌은 지난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계열사 대명소노의 김범철 부사장을 (사진)을 대표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명소노시즌은 기존 김정훈 대표 체제에서 김범철-김정훈 각자 대표 체제로 재편됐다. 김범철 대표는 신사업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김정훈 대표는 그룹 사업체 사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범철 대표는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웅진에너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거친 재무전문가로, 지난해 10월 대명소노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범철 대표는 신사업인 렌탈사업을 직접 챙길 예정이다. 이 회사는 매트리스와 침구류를 중심으로 렌탈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p>(주)부동산중개법인 신화</p> <p>★도곡동 초역세권빌딩★ 황아리상권 위치 대지 650㎡ 연면적 3,100㎡ 지상 7층 지하 3층, 수익률 4.9% 보증금 25억 월세 4,600만 매매가 140억</p> <p>010-2827-5512</p>	<p>★대로변 빌딩매매★ 대: 405㎡ 건: 2,790㎡ 승차대용량 빌딩 임주 열중 회고 온+보 39억 월세 3,400만 매매가 105억</p> <p>02-518-9984</p>	<p>★강북대로변 초역세권빌딩★ 유동인구 풍부한 대로변 지하철역 바로 앞 위치 일반입주지역 / 대지 590㎡ 보증금 8억 월세 5,900만 매매가 235억</p> <p>02-518-9986</p>	<p>★최첨단 물류창고★ 대지 10,000㎡ 연면적 26,000㎡ 월세 2억 3천만 원 경부고속도로 평택인근 매매가 225억</p> <p>02-518-9979</p>	<p>★종각역 상권 1위빌딩★ 대 510㎡ / 건 3,000㎡ 대한민국 최고매인, 올건생 보 10억 / 월 7,000만 매가 220억</p> <p>02-2033-0601</p>	<p>★영등포 수익 6% 빌딩★ 대 760㎡ / 건 5,600㎡ 공실무, 역세권, 승강기 2대 보 9억 / 월 6,700만 매가 135억</p> <p>010-2484-3992</p>	<p>★강남 삼성역사옥 수익★ 대 600㎡ / 건 2,500㎡ 초역세권, 수익, 사옥(신축) 보 10억 / 월 6,000만 매가 230억</p> <p>010-2484-3992</p>	<p>★강남 수익 4% 빌딩★ 대 590㎡ / 건 2,300㎡ 수익, 신축, 프랜차이즈 입점 보 7억 / 월 8,500만 매가 220억</p> <p>02-2033-0601</p>	<p>부동산 광고문의 02-365-3000</p>	<p>마포구, 사육용빌딩 대로변, 평당 15천만 지하철 8분, 4층/지하1 대지 202㎡, 연면적 450㎡ 재건축, 즉시 입주가능 매매 31억</p> <p>02-2213-1995</p>	<p>홍대, 먹자골목 초입 수익률 4.52%, 공실률 0 지하철 5분, 대지 200㎡ 연면적 690㎡, 6층/지하1 보) 7억 8,300/2,082만 매매 63억</p> <p>02-543-5454</p>	<p>강남대로이면 급매물 상업지역(역세권)상권 대 200㎡ / 건 700㎡ / 7층 대 250㎡ / 건 750㎡ / 6층 급매가 52억 (8335억) 급매가 62억 (8440억)</p> <p>02-543-5454</p>	<p>특급 빌딩★ 경기 대로변 코너, 상권우수 프랜차이즈, 병원, 학원 전용 근생 만실, 공실률 0!! 대지 750㎡ / 연면적 2,900㎡ 보 3억 / 월 2,200만 (관리비, 부가세 별도) 급매가 52억 010-2857-1230</p>
<p>자본감소에 따른 재권자 이의 및 주권재소 공고</p>	<p>합병공고 (채권자 이의제출 및 주권재소공고)</p>	<p>분할공고 오전 주식회사</p>	<p>'고요한 재'이 밀려오는데... 예고된 인구 충격이 던지는 경고 미래 연표</p>	<p>무모정 사무실, 투자, 동업합본 투자금 10억~100억까지 월 2부 이자 보장 담보 제공 내사, 상담합본, 소호사무실 주식투자, 운영합본, 경영자주대 사무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51-2 청호오미빌딩 1103호 상담 010-6354-6661</p>	<p>조경수(소나무) 판매 30전~50전 50그루 정호원 근처 직접보시고 결정 ☎ 010-9780-2177</p>	<p>상장사 M&A 인수금융 잔고증원 법인증자 주식담보대출 02-555-3374</p>	<p>긴급상담 ▶담보자금 ▶잔고증원 ▶법인증자 ▶어음·할인 010-8341-8126</p>					
<p>2020년 6월 2일</p>	<p>2020년 6월 2일</p>	<p>2020년 6월 2일</p>	<p>2020년 6월 2일</p>	<p>2020년 6월 2일</p>	<p>2020년 6월 2일</p>	<p>2020년 6월 2일</p>						

〈아침마당〉, 〈PD수첩〉 화제의 주인공! 어떻게 그녀는 아파트 부자가 되었나?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

평범한 주부에서 월세 받는 여자가 되기까지
김유라 저음 | 값 15,000원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VR카탈로그' 업체 모컴테크

“그랜드캐니언·라스베이거스 포켓 VR 통해 체험하세요”

“포켓 가상현실(VR) 기기로 여행을 가지 않고도 미국 그랜드캐니언을 스마트폰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컴테크는 VR 기술을 활용해 전단지나 브로슈어 형태의 'VR 카탈로그'를 제작한다. VR 카탈로그는 주요 관광지나 전시물 등 현장을 3차원(3D) 입체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카탈로그다. 이 같은 3D 영상을 보기 위해선 회사가 생산하는 '포켓 VR 기기'를 써야 한다.

'나비(상품명)로 불리는 이 포켓 VR 기기는 기존의 3D 헤드셋 VR 기기(HMD)와 다르다. 스마트폰에 클립식으로 붙여 착용하는 구조로 휴대가 간편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최해용 모컴테크

스마트폰에 클립식으로 붙여 착용
기존 헤드셋 VR 기기 가격 10%선
3D 모델하우스 카탈로그도 계획

사장은 "기존 HMD는 무게가 앞으로 쏠려 사용에 거부감이 많았다"며 "나비는 기존 HMD 무게의 20분의 1, 가격은 10분의 1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비는 지난달 특허청의 중소기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사업대상 제품으로도 선정됐다. 우선구매추천 사업 대상이 되면 조달청 우수제품 지원 시 가격 혜택을 받아 교육청 및 박물관 등에 반포가 열리게 된다.

최사장은 이미 미국 관광청과 납품 계약을 맺고 그랜드캐니언을 3D 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제품을 내놨다. QR코드가 인쇄되면 브로슈어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자동으로 해당 영상으로 연결된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도시 전경과 유다주 유명 관광지인 브라이스캐니언의 3D 영상 제품도 납품하고 있다.

국내에선 신규 분양 아파트, 오피스텔의 건설사와 협업을 시아버 3D 모델하우스 카탈로그를 제작하려고 준비 중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동산 분양 시장에서 고객 대면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사장은 "모델하우스 VR 카탈로그를 제작해 실제 고객이 부동산 내부 현황을 직접 보는 듯한 3D 영상 제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2년 설립된 모컴테크는 현미경이나 카메라 렌즈를 제작하던 광학 전문 기업이었다. 그는 "페이스북이 2014년 VR 업체인 오클러스를 20억달러(약 2조 4500억원)에 인수하는 것을 보고 VR사업의 잠재력을 높게 보고 뛰어 들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VR, 증강현실(AR) 관련 특허 약 100건을 등록해 현지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모컴테크
위치 서울 노원구 공릉동(연구소)
설립 1992년 4월
직원수 40명
주요제품 3차원(3D) VR 및 AR 관련 제품



최해용 모컴테크 사장이 미국 관광청에 납품하는 '그랜드캐니언 VR 카탈로그'를 소개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